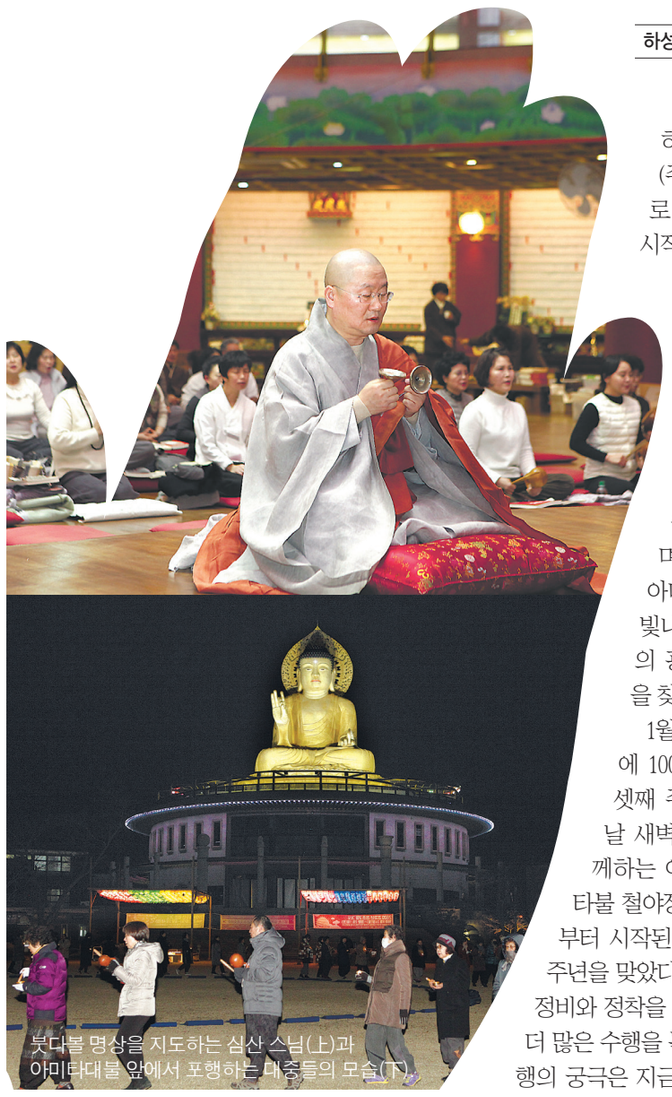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 모인 100여 대중이 주지 스님과 함께 목탁을 치며 아미타불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명호를 부르는 불자 대중의 얼굴이 환희로 가득차 보인다.

부산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 현장

"나무아미타불"… 이곳이 '서방정토'



붓다볼 명상을 지도하는 심산 스님(上)과 아미타대불 앞에서 포행하는 대중들의 모습(下).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아미타불 철야정진 1주년 맞아
붓다볼 명상 프로그램 병행해
홍법사 외 모든 불자 동참 개방

"자신 낮추고 상대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이 극락을 이루는 마음,
지금 사는 이 자리가 극락정토"

어둠 속에서 아미타대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다. 아미타대불 아래로 홍법사 염불행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목탁과 붓다볼(싱잉볼) 등을 나누어 든 대중은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한걸음 한걸음 경내를 걷기 시작했다. 염불소리를 따라 붓다볼의 맑은 울림이 시방으로 퍼져가고, 대중은 한걸음 한걸음 극락정토를 염원하며 걸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아미타대불의 광명은 더욱 밝게 빛나고 대중의 염원도 아미타대불의 광명처럼 시방의 어두운 곳곳을 찾아간다.

1월 18일 밤 9시 홍법사 대광명전에 100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리는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아미타불 철야정진(이하 아미타불 철야정진)'을 위해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아미타불 철야정진 법회가 1주년을 맞았다. 대중은 지난 한 해를 법회의 정비와 정착을 위해 정진했고, 올해는 변화와 더 많은 수행을 목표로 정진한다. 그리고 그 수행의 궁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극락정토를 이루는 것이다.

대중은 천수경과 백팔대참회문에 맞춰 108배를 올렸다. 108배가 끝난 후 주지 심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심산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기도문을 인용하며 올바른 기도에 대한 설법을 이어갔다. 스님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곧 기도다"며 "이 마음이 극락을 이루는 마음이며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바로 당신이 아미타부처님이다"고 설법했다.

30분의 설법이 끝나고 대중은 대북과 징 그리고 목탁, 경쇠, 붓다볼 등 각자의 법구를 들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했다. 법구들의 울림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한목소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었고, 서로를 돕는 힘찬 염불소리로 수행의 현장은 뜨거워졌다. 신이 난 불자들의 고성염불은 마치 노래처럼 들려왔고 대중은 염불삼매를 향해 정진을 이어갔다. 이내 대중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가득 차고 법당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로 가득 찼다.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대중은 가벼운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게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갔다. 천천히 경행을 하며 다시 아미타부처님을 불렀다. 경행을 마친 대중은 잔디마당에 둥글게 둘러앉아 명상으로 철야정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잠시 휴식 후 다시 수행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아미타경〉 독경으로 참된 극락을 이해하고 아미타 48대원을 서원하며 밤새 염불을 이어갔다.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철야정진이지만 수행에 참여한 대중은 오히려 철야정진을 통해 한 달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간다고 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한 박은경(49 · 부산 연제구) 씨는 기도 동참 당시 가족들의 만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암 투병 중이었고, 기도 동참 다음 날에는 어린이법회 봉사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달 후의 다음 철야정진이 기다려질 정도로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아미타기도는 제 자신이 정화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워킹맘으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어린이법회 봉사까지 하고 있지만 피곤함보다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불자들도 좋은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자 아미타기도회 회장은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은 홍법사 불자들뿐 아니라 부산과 인근 지역 모든 불자들에게 열린 기도 모임이다"고 말했다.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은 붓다볼 명상을 함께 진행한다. 붓다볼은 일명 '싱잉볼'로 불리는 명상 도구이지만 홍법사는 '도구'가 아닌 '법구'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붓다볼은 일반적으로 싱잉볼로 불린다. 붓다볼 명상이 주는 유익함을 연구하고 널리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며 "붓다볼 명상을 통해 아미타기도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계획이다"고 했다.

홍법사는 붓다볼 명상을 위해 전문 수행 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홍법사는 붓다볼 명상을 강조하며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나래평생교육원에서는 3월 첫째 주부터 15주간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수업은 중급반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이며, 초급반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으로, 평생교육원에서 각각 열린다.

홍법사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명상 그리고 염불수행으로 극락세계를 열어갈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홍법사에 처음으로 아미타대불을 모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재를 떠올렸다"며 "하지만 처음 불사를 할 때 마음 속 깊이 낸 원력은 '이곳을 극락 같이 살아가자'란 취지였다. 아미타대불을 보며 모두가 극락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20년 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